

식민지 근대 시기 잡지 담론과 김동인의 「결혼식」에 나타난 풍기문란 고찰

최 경 희*

요약

본고는 식민지 근대 시기 『별건곤』과 『삼천리』 그리고 김동인의 「결혼식」을 대상으로 풍기문란 소문에 나타난 신여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여성 혐오 그리고 근대적 여성다움의 규범화를 분석하였다. 『별건곤』과 『삼천리』는 식민지 근대를 둘러싼 정치, 사회, 문화, 생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근대적 욕망과 일상, 그리고 소설 등을 게재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여성의 사랑과 성을 둘러싼 풍기문란 소문을 다루는 과정에서 대중적 상업성을 표방하며 위계화된 젠더 의식을 보여주었다. 즉 탐방기, 미행기, 정탐기, 비화, 애화, 회고·수기 등의 지면들에 나타난 풍기문란 소문은 젠더 위계화를 내면화하였다. 또한 김동인의 「결혼식」은 남성 화자가 통속적이고 혐오성 짙은 어조로 신여성의 풍기문란 소문을 묘사하며 정조관념 부재에 대한 죄의식과 경각심 그리고 사회적 징벌을 구현한 소설이다. 본고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별건곤』과 『삼천리』 그리고 김동인의 「결혼식」에 나타난 풍기문란 소문이 신여성의 사유와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매개였음을 살펴 보았다. 즉 풍기문란 소문이 신현모양처상을 독려하고 훈육하는 등 순결하고 정숙한 아내와 어머니를 내면화한 신가정 담론을 내재하고 있음을 밝혀 보았다. 다시 말해 풍기문란을 둘러싼 소문과 가십을 통해 생활 단속과 성적 통제 뿐만 아니라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자격 요건에 기준을 두고 여성 정체성을 규범화했음을 분석하였다.

주제어: 식민지, 근대, 별건곤, 삼천리, 신여성, 풍기문란, 소문, 가십, 젠더, 연애, 결혼, 여성 혐오, 김동인

*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글쓰기 강사

목차

1. 서론
2. 비화, 탐사, 미행 그리고 근대적 여성상의 규범화
3. 「결혼식」의 전문(傳聞)과 여성 혐오
4. 결론

1. 서론

식민지 근대 시기 자유연애와 연애결혼은 구질서와의 단절을 추동하는 시대인식이었고 신여성¹⁾은 이를 자각하고 수행하는 시대정신으로 표상되었다. 동시에 자유연애와 연애결혼은 전통적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써 비난받았고 신여성은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다. 자유연애가 찬사와 동경, 논란과 우려 등 화제를 모은 가운데 신여성은 근대와 전통의 경계에서 동경과 추문의 대상으로 대중의 “구경거리”²⁾가 되었다. 또한 매체와 학교는

1) 신여성은 “근대의식을 가지고 시대에 선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근대녀”라고 규정되었다.(류광렬 외, 「모던이란 무엇이나, 모-던걸·모-던뽀이 대론평」, 『별건곤』, 제10호, 1927. 12. 20)조선에는 두 여성층이 존재하는데 “신녀성을 중심으로 한 활기있는 진취적 진위적 여성층이요, 하나는 구녀성을 중심으로 의연히 구각을 벗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는 무기력한 보수적 여성층”이라고 했다. 이밖에 신여성은 “집단적 분자”로 나눌 수 있는데 “사회운동자-부인운동자, 직업부인, 무직자-미쓰, 신가정 부인, 여학생” 등이라고 했다.(박로아, 「녀성공황시대」, 『별건곤』, 제30호, 1930. 7. 1) 한편 김은실은 1920-1930년대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신여성이란 말이 처음 사용되었다고 했다. 또한 신여성은 미디어를 통해 비판되거나 혹은 구체적인 스캔들을 통해 사회적으로 배제됨으로써 현실에서 추방되어 갔다고 했다.(김은실, 「염상섭의 모델소설 「해바라기」의 나혜석 이해하기」, 『나혜석연구』, Vol.9 No., 나혜석학회, 2016, 108면) 이밖에 김수진은 1920년대 초기에는 나혜석, 김일엽, 정종명, 김활란 등 교육받은 여성을 신여성이라고 불렀지만 1930년대에는 모던걸 그리고 현대여성이라고 불려졌던 현모양처까지 모두 신여성으로 묶어 언급되었다고 보았다.(김수진, 『1920-30년대 신여성담론과 상정의 구성』, 서울대 박사논문, 2005, 124-126면)

2) 켈리 Y. 정, 「신여성, 구경거리(a spectacle)로서의 여성성: 가시성과 접근성 : 나혜석의 「경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Vol.0 No.2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5, 126면.

남녀학생의 연애를 풍기문란으로 다루었다. 동아일보는 풍기단속에 초점을 두고 남녀학생의 교제를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문제거리로 규정했다. 영화관, 낚시터, 공원, 철도역 등이 학생들의 연애 장소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철도역이 “연애교환소” 혹은 “연애대합실” 등으로 불린다면서 연애편지 교환 장소로 이용된다고 했다.³⁾ 학교는 생활지도의 명목으로 학생들의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하였다. 남학생은 미성숙하다는 이유였던 반면 여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규율 뿐만 아니라 섹슈얼리티 문제가 더해져 야간 외출을 금지하거나 편지를 검열하였다. 여학생에게 구체적 규율을 부과하는 등 성차별적인 규제를 했다. 정조 관념 부재가 사회 규범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여학생 일탈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루었다. 여학생은 그 수치에 비해 더 크게 가시화되었다.⁴⁾ 여성 교육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 분위기에서 고학력자 여학생은 관찰과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 결혼적령기 여성이 학교라는 공적 공간에 진입함으로써 교란된 젠더 질서를 재구축한다는 이유였다.⁵⁾

이 글의 목적은 신여성의 풍기문란을 둘러싼 소문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별건곤』(1926. 11.-1934. 8)과 『삼천리』(1929. 6. 12. - 1939. 6. 1) 그리고 김동인의 「결혼식」(『동광』 제24호, 1931. 8. 4)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때 소문은 비독립적 말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풍문뿐만 아니

3) 「여학생을 농락, 기차 통학생이」, 『동아일보』, 1926.6.11.

4) ‘학생풍기단속’이란 말은 신문에서 흔히 볼 수 있었고 학교는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관찰하고 통제하였다. 학교는 근대적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각종 규율로써 근대적 태도를 배양한 존재로 학생들을 훈육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일상은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었고 다양한 기제들이 가정과 학교, 사회 전반에 걸쳐 구축되어 갔다. 그런데 유독 학생에 대한 규율은 젠더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었다.(소현숙, 「일제하 중등학교 여학생의 일상에 대한 규율과 통제」, 『여성사 연구』, Vol.0 No.31, 한국여성사학회, 2019, 244-250면) 여학생에 대한 젠더 규율은 이희경, 「1920년대 ‘여학생’의 사회적 표상 - 잡지 『신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연구』, Vol.10 No.1, 한국교육연구소, 2004, 55-79면 참고.

5) 식민지 근대의 여학생 교육에 나타난 젠더 규범화에 대한 논의는 이윤미, 「식민지시기 『학생』지에 나타난 여학생교육」, 『교육사상연구』, Vol.31 No.3,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17, 67-103면, 소현숙, 앞의 논문, 277면 참고함.

라 그와 유사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나타나 공동체에서 유통되는 시의성 있는 정보로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개념⁶⁾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고는 신여성의 풍기문란 소문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연계한 근대적 여성다움의 규범화 재생산임을 살펴 위계화된 젠더 의식의 실재를 밝히고자 한다.

『별건곤』과 『삼천리』는 식민지 근대를 둘러싼 정치, 사회, 문화, 생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근대적 욕망과 일상, 그리고 소설 등을 게재하였다. 무엇보다 이 시기 잡지들이 가십난을 통해 소문을 생성하고 유포하는 등 상업주의 판매방식과 흥미 위주의 지면을 구성⁷⁾한 것처럼 『별건곤』과 『삼천리』 또한 이같은 대중적 상업성을 표방했다. 뿐만 아니라 탐방기, 미행기, 정탐기, 비화, 애화, 회고·수기 등 대략 80여편에 달하는 지면들⁸⁾은 신여성을 소문과 가십의 주인공으로 삼아 사회적 논란과 문제거리의 요인으로 설정해 부정적 이미지로 그렸다. 신여성의 일탈을 집중적으로 서술하며 풍속을 헤치는 주범으로 몰아 고발하였다. 즉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풍기문란을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출처가 불분명하고 원색적인 이야기로 신여성의 생활을 비난하였다. 신여성을 타자화하고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윤리와 도덕 그리고 풍속의 지킴을 주장한 것이다. 잡지 담론이 대중의 인식과 생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신여성의 존재를 터부시한 이같은 지면들의 분석은 폭력적 젠더 인식을 훈육한 실재를 살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본고는 신여성의 풍기문란 소문과 가십난에 나타난 젠더 위계화가 문학작품을 통해서도 재현되고 있음을 김동인의 「결혼식」을 대상으로 살피고자 한다. 지금까지

6) Hans J. Neubauer, 박동자·황승환 역, 『소문의 역사』, 세종서적, 2001, 17-18면.

7) 강영걸·정혜영, 「1930년대 대중잡지를 통해 본 식민지 조선의 '대중'」, 『비교한국학』, Vol. 20 No. 0, 국제비교한국학회, 2012, 157-158면.

8) 본고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의 출처는 포털 사이트 국가편찬 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한국근대현대잡지자료이다.

의 논의들은 소문과 가십이 내재한 젠더 위계화를 형상화한 대표적 작품으로 김동인의 「김연실전」(『문장』, 1939. 3)에 주목하였다. 선행연구들은 「김연실전」이 김명순을 둘러싼 소문과 가십을 형상화한 작품으로서 신여성의 사랑과 성을 왜곡한 남성의 시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소문과 가십이 내재한 폭력적 젠더 의식을 「김연실전」보다 무려 8년 먼저 발표한 「결혼식」을 간과하였다. 「결혼식」은 여성 인물의 연애와 결혼을 둘러싼 풍기문란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남성 인물들의 젠더 폭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 시기 젠더 폭력의 실재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석 대상이다.

본고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별건곤』과 『삼천리』 그리고 김동인의 「결혼식」에 나타난 신여성의 풍기문란 소문이 여성의 사유와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매개였음을 살피고자 한다. 즉 풍기문란 소문이 현모양처라는 여성상을 독려하고 훈육하는 등 순결하고 정숙한 아내와 어머니를 내면화한 신가정 담론을 내재하고 있음을 살피고자 한다. 다시 말해 풍기문란을 둘러싼 소문과 가십을 통해 생활 단속과 성적인 통제 뿐만 아니라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자격 요건에 기준을 두고 여성의 정체성을 규범화했음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신여성을 둘러싼 풍기문란 소문을 다룬 선행 연구들⁹⁾을 간략

9) 김연숙, 「사적 공간의 미서권력 - 소문」, 태혜숙 외,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4, 214-240면.

손혜민, 「소문에 대응하여 형성되는 "신여성"의 기표 -나해석의 단편 「경희」(1918)를 중심으로」, 『사이(SAI)』, Vol.7 No,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9, 141-168면.

심진경, 앞의 논문, 289-312면.

———, 「여성문학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한국근대문학연구』, Vol. - No.19, 한국근대문학학회, 2009, 181-201면.

진선영, 「추문의 데마고기(Demagogy)화, 수사학에서 정치학으로」, 『여성문학연구』, Vol.30 No.-,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321-346면.

송명희, 「김명순, 여성 혐오를 혐오하다」,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8 No.1, 부경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7, 123-154면.

하게 살펴 보면, 먼저 김연숙은 신여성을 둘러싼 소문은 근대 여성주의와 가부장제 사회 간의 긴장과 갈등을 보여주는 징후이자 남성들의 무의식이 발화되는 지점이라고 비판하였다. 손혜민은 나혜석의 「경희」에 나타난 신여성을 둘러싼 소문 모티프에 주목해 소문이 신여성의 상을 형성하는 데 주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심진경은 염상섭의 『이심(二心)』을 중심으로 여성에 관한 스캔들이 어떻게 소설 속에서 중요한 서사적 동력으로 작동하는지와 스캔들 서사가 염상섭 소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밝혔다. 박정애는 나혜석의 소문에 나타난 여성의 주체성 훼손에 주목해 소문에 대한 좀 더 책임 있는 접근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최명표는 근대적 개인의 삶은 소문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 아래 타인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기존 질서 속에 구성된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소문 텍스트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남성 중심적 시선의 폭력성과 소문에 저항한 여성의 목소리를 분석하는 등 소문이 내재한 근대와 젠더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들이다. 그럼에도 몇몇 작가와 작품에 한정시켜 연구된 점, 소문이 내재한 젠더 의식의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매체 분석이 협소하다는 점이 아쉽다.

본고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별건곤』과 『삼천리』에 나타난 신여성의 풍기문란 소문이 내재한 젠더 위계화를 살피고자 한다. 남성의 혐오

류진아, 「근대 여성 성폭력 연구」, 『국어문학』, Vol.61 No.-, 국어문학회, 2016, 159-186면.

이영아, 「1920년대 소설의 '자살' 형상화 양상 연구 -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Vol.0 No.33, 한국현대문학학회, 2011, 207-248면.

이덕화, 「이광수의 나혜석과의 관계에 대한 문학적 대응」, 『춘원연구학보』, Vol.0 No.10, 춘원연구학회, 2017, 175-198면.

박정애, 「소문과 진실: 나혜석과 이광수」, 『나혜석연구』, Vol.2 No.-, 나혜석학회, 2013, 7-32면.

최명표, 「소문으로 구성된 김명순의 삶과 문학」, 『현대문학이론연구』, Vol.30 No.- 현대문학이론학회, 2007, 221-245면.

박산향, 「김명순 소설에 나타난 근대여성에 대한 시선」,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8 No.1, 부경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17, 157-179면.

적 시선을 내면화한 풍기문란 소문을 활용하여 여성의 사유와 삶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규범화한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김동인의 「결혼식」을 대상으로 신여성의 풍기문란 소문이 대중의 입을 통해 어떻게 구성되고 배치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풍기문란 소문 서사가 사랑과 성에 대한 여성의 감정과 행동 도덕과 윤리 등의 규범화를 재생산한 점을 살피고자 한다.

2. 비화, 탐사, 미행 그리고 근대적 여성상의 규범화

신여성의 풍기문란 소문이 유통된 시기는 여성이 교육과 스스로의 자각을 통해 근대 공간으로 진입한 때다. 또한 자유연애와 연애결혼이 활발하게 공론화되는 한편 가정의 충실함을 전제로한 여성의 사회 활동을 독려한 때다. 특히 근대적 주체로서 여성은 연애를 하고 이후 취업보다는 가정 내에서 자신의 능력과 천분을 다하도록 훈육받았다. 전문적 모성과 근대적 가정 경영술, 양처로서의 내조자 등의 역할을 하면 공적 영역에서의 권리와 필요성을 인정받은 반면 가정을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에게는 사회적 징벌이 뒤따랐던 때다.¹⁰⁾

『별건곤』과 『삼천리』는 항간에 떠도는 신여성의 사랑과 성을 둘러싼 풍기문란 소문을 수기, 실화, 애화, 비화, 정담기, 탐사기 세태비평 등의 지면에 게재했다. 신여성의 풍기문란¹¹⁾에 대해 남성 필자들은 저급한 어

10) 김연숙, 「근대 주체 형성과 '감정'의 서사: 애화비화에 나타난 '슬픔'의 구조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Vol.29 No.-, 현대문학이론학회, 2006, 44면.

11) 여기에 해당되는 지면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조재호, 「교단에서 본 남학생과 녀학생. 남녀는 학생시대부터 엇더케 다른가」, 『별건곤』, 제19호, 1929. 2. 1.

정성태, 「성욕의 생리와 심리 - 남녀량성의 성욕고」, 『별건곤』, 제19호, 1929. 2. 1.

김기전, 「청년 남녀교제의 선도책 여하」, 『별건곤』, 제19호, 1929. 2. 1.

조와 냉소 그리고 혐오를 드러냈다. 사랑의 “승업”을 저버리고 여러 남자를 씹없이 사귀는 신여성¹²⁾의 모습은 쉽게 찾을 수 있다. “교태를 가지고 남성을 끄어들어” 유혹한다, “몸가짐을 유의”하라, “탈선, 방종, 분방, 퇴폐의 아름다지 못한 소문”이 떠돈다, “도덕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위생학적으로 이해와 지식”을 주는 성교육이 시급하다, “육체와 감정의 발달이 아조 스피드”하다, “연애를 네댓번씩하고 결혼을 일년에 한번씩”한다, “아조 었-븐 녀학생”들이 모여 “녀학생 술장사”를 한다, 어느 학교는 “여학생의 얼굴을 보아 골한다는 주문까지”있다, 그리고 “녀학생이 공원에 와서” 출산했다고 했다. 이같은 지면들에서 신여성은 성적 문란으로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주범이었고 사회적 징벌의 대상이었다. 탐사와 미행의 대상이 된 신여성은 불온한 이미지로 그려졌다. 사회 윤리와 도덕을 위배하는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혔다.

이 사이의 여학생계 그 일부의 말 못할 괴현상은 이 탐사기가 자세히 설명하려니와 『요사이 머리 큰 여학생치고 행실 암전한 것이 잇는 줄 아나?』하는 향간의 소리는 결코 지나친 말이라고만 단언하기 어려운 점이

북대기자 쌍S, 「전룰할 대악마굴 녀학생 유인단 본굴탐사기, 그들의 독수는 집마다 노린다 가정마다 넓으라, 학교당국도 넓으라」, 『별건곤』, 제5호, 1927. 3. 1.

보성고보구중회 외, 「학교와 가정의 시급문제 성교육 실시 방책」, 『별건곤』, 제19호, 1929. 2. 1.

「신녀성 구혼경향, 신랑 표준도 이리케 변한다」, 『별건곤』, 제2호, 1926. 12. 1.

「내외 못된 결 못된 뽀-이집」, 『별건곤』, 제20호, 1927. 12. 20.

「부랑남녀 일망타진, 변장기자 야간탐방기」, 『별건곤』, 제11호, 1928. 2. 1.

「대대풍자 신춘지상과담회」, 『별건곤』, 제26호, 1930. 2.1.

「대비밀대박노, 현대비밀직업진탐회」, 『별건곤』, 제14호, 1928. 7. 1.

「신류향! 괴류향!」, 『별건곤』, 제16·17호, 1928. 12. 1.

「상상 맛갓 세상 경성의 다섯 마굴」, 『별건곤』, 제23호, 1927. 9. 27.

12) 남자 「그래 아모리기로 나한테 그런 약속까지 해놔코 뒤로는 내 친구에게 또 사랑하네 그리 우네 하고 그 따위 편지질을 한단 말이요?」 녀학생 「그까짓것 가지고 이렇께까지 노하실 것이 무어 잇서요. 그런데 대관절 누구에게 보낸 편지를 보고 그러세요. 김씨에게 한 것 인가요. 고씨에게 한 걸 보셨나요. 혹시 강씨나 심씨에게 한 걸 보시고 그러시나요.」(「내외 못된 결 못된 뽀-이집」, 『별건곤』, 제20호, 1927. 12. 20)

있다. ...(중략)...그들은 교동 한양탕 아래 돈의동 골목으로 드러섰다. 자정이 잦아들었는데 이 들 수상한 남녀가 한데 몰려서 가는 곳이 어데일지 대어쓰기는 하였으나 이 골목에 드러스면서부터 내 가슴은 자못 종용치 못하였다. ...(중략)... 단한 간 방에 책상까지 놋코 다섯 남녀가 안저 잇스닛가 무릅과 다리가 어지럽게 엇갈려 잇는 것은 물론이다. ...(중략)... 그리고 학교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요, 부모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중략)...附記 이 원고를 정리할 때에 그 金義順이란 여학생은 매월 팔십원씩 준다는 말에 팔니여 새 연애를 작만하여 멀리 경남 진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북대기자 쌍S, 「전를할 대악마굴 녀학생 유인단 본굴탐사기, 그들의 독수는 짐마다 노련다! 가정마다 넓으라, 학교 당국도 넓으라」, 『별건곤』, 제5호, 1927. 3. 1)

위의 지면은 제목에서부터 신여성을 둘러싼 풍기문란 소문의 사회적 심각성과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주장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신여성의 추문을 “괴현상”, “판 세상 짓들”로 규정해 조롱하고 힐난하였다. 남녀학생이 “무릅과 다리가 어지럽게 엇갈려”있거나 돈을 받고 팔려가듯 연애하는 여학생이 있다는 등 관음증적 서술을 서슴치 않았다. 신여성의 연애방종을 지탄하며 죄의식과 경각심을 부추겼고 가정과 학교가 선도책 마련에 앞장서길 촉구하였다. “야간 탐방기”¹³⁾ 또한 여학생의 성적 탈선 풍문을 상세한 정황을 들어 고발하였다. 약혼자 있는 여학생이 남학생과 연애하는 것을 미행했다거나 이혼한 언니와 사는 여학생 집을 방문하는 수상한 남자가 후원자인 듯하다고 전했다.

한편 미성년금지금연법¹⁴⁾에 위배되는 여학생의 술장사를 다룬 “현대미

13) 三隊 北熊, 波影, 「부랑남녀 일망타진, 변장기자 야간탐방기」, 『별건곤』, 제11호, 1928. 2. 1

14) 15세 정도면 혼인이 가능한 연령으로 간주하였던 조선사회의 관습에 따라 조선에서는 십대 후반의 음주나 깃연은 특별히 불량한 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등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음주를 막기가 쉽지 않았던 사정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근대적 학교교육의 보급과 전 시체제로의 전환 속에서 학생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이 증대되자 조선에서도 미성년금지금연법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소현숙, 「식민지시기 불량소년 담론의 형성」, 『한국사회사학회』,

밀직업전람회¹⁵⁾는 “가짜 학생이 안이고 정말 시내 어느 고등학교에 단이는 녀학생”이 술집을 운영한다며 “여학생의 비밀직업”을 폭로하였다. 술장사를 하는 여학생은 손님과 트림프와 화투를 하는 등 도박도 서슴치 않는다고 하였다. 이렇듯 신여성은 풍기문란의 주인공이 되어 사회악의 존재로 그려졌다. 필자는 잠입 취재를 강조함으로써 신여성을 사회 규범과 도덕을 균열내는 현실 인물로 규정해 정조 관념 부재에 대한 죄의식과 성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확대 재생산하였다. 추문의 주인공이된 신여성은 신성하고 숭고함을 모토로한 신가정 프레임¹⁶⁾에 반(反)하였다. 신여성을 신가정 담론의 현모양처상¹⁷⁾과 대척점에 위치시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이같은 방식으로 연애의 진정성을 결혼으로 봉합한 신가정 담론의 강박적 정조 의식은 재구축 되었다.

서울 리화녀자전문학교를 장안 각씨들이 우러러 축복하는 속에서 즐

Vol.0 No.107, 사회와역사, 2015, 49~50면)

- 15) 「대비밀대박노, 현대비밀직업전람회」, 『별건곤』 제14호, 1928. 7. 1.
- 16) 예를 들어 여기에 해당되는 지면은 “일시적 기분이거나 감정에 끌리어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은 “團樂한 부부”라는 것, “생리적 충동으로 나타나는 순간적 향락을 爲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훈육했다. 다시 말해 연애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간대사 참된 부부”가 되기 위한 교제여야 한다는 것, 연애는 인생 공부라면서 배우자 선택의 신중함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유행하는 연애는 “작단戀愛, 드러운戀愛, 풋戀愛”라면서 가장 “인생의 뜻이라고 할 만한戀愛”는 “嚴肅하고 熱烈하고 眞實하여야할 터인데 거기에 遊戲的 氣分이 조금이라도 흐른다면 그거슨 破滅이라면서 인생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申알베트 외, 「남녀대토론, 자녀결혼에 간섭을 할가 자유로 돌가」, 『별건곤』, 제16·17호, 1928. 12.1 ; 조재호, 「부부의 도」, 『별건곤』, 제19호, 1929. 2. 1 ; 방인근, 「연애남녀비망록, 연애독본·결혼교과서」, 『별건곤』, 제10호, 1927. 12. 20)
- 17) 여기에 해당되는 지면은 아래와 같다.
녹안경, 「부부생활의 비밀 대담기」, 『별건곤』, 제15호, 1928. 8. 1.
「미국, 중국, 일본에 다녀온 뉴류인물평판기, 해외에서는 무엇을 배웠으며 도라와서는 무엇을 하는가」, 『별건곤』, 제4호, 1927. 2. 1.
김학보, 지상토론 현하 조선에서의 주부로는 녀교출신이 나훈가 구녀자가 나훈가」, 『별건곤』, 제16·17호, 1928. 12. 1.
「신구가정의 장점과 단점」, 『별건곤』, 제24호, 1929. 12.

업하고난 이십여세의 꽃가튼 아릿다운 처녀 한분이 학교문을 나온 뒤 얼마있지 안어서...(중략)...조고마한 암자하나를 짓고 노자장자모양으로 여러해를 외로히 살고 있는 그 녀성을 혹 보신 이도 잇습것이외다. ...(중략)...(중략)... 그들은 젊은 몸이었습니다. 가사와 백팔념주와 불경의 우는 그몸도 이 세상인간과 가튼 조직을 가진 몸들이매 깨끗내. 두분은 이성간 도달할 수 있는 최후에까지 그만 이르고 말었습니다. ...(중략)... 몇칠아 피차에 괴로운 몇칠이 지내어 갓습니다. 절간속에는 더구나 조롱하는 눈치가 차섯습니다. 청년도승의 괴로움은 극도에 이르렀습인가, 하로아침은 이 절간에서 그만 P는 종적을 감추고 말었습니다. ...(중략)... 박양은 「사랑의 씨」를 제몸에서 갈너내었습니다. 외따로운 곳에서 더구나 사내들만 사는 이 절간에서 해산한 그의 괴로움이야 오직하엿겟습니까. 석달만에 박양은 아직 피에 저진 갓난애을 업고 그 절간을 떠났습니다. (「금강산 암자속의 비련의 허무주의적 녀성애화, 사랑을 이룬 그는 최애의 갓난 아해를 안고 산에서 산으로 장차 어대로 헤매려는가」, 『삼천리』, 제17호, 1931. 7. 1)

애화(哀話)나 '비화(悲話)' 등의 키워드를 사용한 지면은 여성의 성적 수난이나 갈등 등을 고조시켜 연애의 위험성과 비극성을 각인시켰다. 이런 류의 기사에서 화자는 탐정이나 엿보는 자의 위치였고 주인공은 폭로나 비판, 연민의 대상으로 설정되었다.¹⁸⁾ 위의 지면은 「금강산 암자속의 비련의 허무주의적 녀성애화, 사랑을 이룬 그는 최애의 갓난 아해를 안고 산에서 산으로 장차 어대로 헤매려는가」라는 제목에서 부터 이같은 전개를 짐작하게 한다. 애화는 서양식 근대 교육을 받은 박성희가 “비극의 녀왕”이된 풍기문란 사연을 통속적인 어조로 서술하였다. 암자에 머물던 박성희가 청년도승 P와 “애인간”이 되어 “이성간 도달할 수 있는 최후”까지 가서 사랑과 인생의 파국을 맞았다는 것이다.

18) 김양선, 「발견되는 성, 전시되는 성 -식민지 근대와 섹슈얼리티의 접속」, 『시학과언어학』, Vol.0 No.21, 시학과언어학회, 2011, 64면.

박성희의 애화는 연애를 방종으로 규정함으로써 성을 통제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혼전 임신을 키워드로 여성의 성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혼전임신에 대한 남성인물의 회피와 박성희의 비극적 말로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박성희가 자신의 혼전 임신에 대해 “조금치도 붓그러울 것”이 없으며 당당한 것과 달리 P는 세상의 이목이 두려워 자취를 감춘다. 결국 박성희는 “사랑의 씨”를 홀로 출산한 후 “피에 저진 갖난애을 업고 절간”을 떠났다는 것이 풍문의 전말이다. 혼전 임신은 개인에게는 삶의 오점이자 비극이고 사회적 지탄을 받을 일임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조 관념 부재는 개인의 비극이자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위험한 행위임을 유포한 지배담론¹⁹⁾과 같은 맥락이다.

『별건곤』과 『삼천리』는 이같이 항간에 떠도는 풍기문란을 비중있게 다루었다. 공동체 가치와 규범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개인의 일탈을 비판하였다. 풍속의 해체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을 환기시켰다. 그런데 사회적 도덕과 윤리 유지를 저해하는 일련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신여성 소문과 가십의 중심에 세워 논란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즉 신여성은 사회 규범을 흔들기 충분한 사건·사고의 주인공으로써 사회 질서를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사회 문란 풍조를 문제 삼아 풍속의 혼란을 바로 잡겠다는 명목으로 신여성을 타자화하고 대상화하였다. 신여성을 풍기문란 단속의 대상으로 삼아 남성 중심적 시선을 내면화한 여성상을 내세워 바람직한 여성 정체성으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사랑과 결혼에 대한 여성의 정서, 감정, 가치관, 욕망 등을 규범화한

19) 박경선은 1930년대는 근대적 사상이나 문물이 유입되어 사회진반에 있어서 현저한 변화가 나타난 시기라고 했다. 엘렌 케이의 연애론이 유입되고 난뒤, 많은 청춘남녀들이 자유연애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면서 특히 신여성들이 자유연애를 추구했는데 신여성의 연애 상대인 교육을 받은 남성들은 이미 결혼을 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의 연애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박경선, 『삼천리』에 나타난 1930년대의 결혼관, 『인문과학연구』, Vol.0 No.27, 강원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10, 105면)

신가정 담론²⁰⁾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신가정 담론은 외적으로는 근대 식 가정 생활을 권장함과 동시에 내적으로는 남성 중심의 시선을 내면화한 순결한 여성상을 독려하는 등 남녀의 성역할을 뚜렷하게 구분지었다. 또한 풍기문란 소문은 비현실적이고 실제 없는 환상에 근거한 여성혐오를 내재하고 있다. 여성혐오는 현실의 여성이 아닌 명백하게 실제 없는 환상과 이미지에 근거하여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주체임을 인정하지 않고 여성을 타자화하여 기호처럼 만드는 것이다.²¹⁾ 이러한 점에서 풍기문란 단속은 단순히 공동체 풍속 유지를 넘어 위계화된 젠더 의식을 내포했다고 볼 수 있다.

3. 「결혼식」의 전문(傳聞)과 여성 혐오

소문은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의 사적 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배제 효과로 활용되었다. 소문에 포획된 여성은 ‘발생-유포-재생산’의 과정을 거쳐 철저히 대상화되었다. 소문은 여성을 둘러싼 근대 여성주의와 가부장제 사회 간의 긴장과 갈등을 보여주는 징후이며 사회 담론이자 불평등한 성별 권력을 내포했던 정치적 지점이었다.²²⁾ 또한 작품에 나타난 소문이 중요한 까닭은 이것이 당대 신여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드

20)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논의는 아래와 같다.

박찬희, 「명사숙녀결혼초야의 첫 부탁, 첫날밤에 무엇을 말했나」, 『별건곤』 제1617호, 1928. 12. 1.

리동원 외, 「안해에게 남편에게바라는 일」, 『별건곤』, 제11호, 1928. 2. 1.

여성에 대한 강박증적 정조 의식과 신가정 프레임에 대한 논의는 줄고, 「1920-1930년대 『별건곤』을 통해 본 연애와 결혼의 의미와 양상 연구-신여성·신가정·근대의 젠더 의식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Vol.0 No.67, 우리문학연구, 2020, 403-425면.

21) 손희정, 「혐오와 절합하고 경합하는 정동들」, 『여성문학연구』, Vol.36 No,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128면)

22) 김연숙, 「여성,소문으로 말해지다」, 『그녀들의 이야기, 신여성』, 역락, 2011. 33면.

러낼 뿐 아니라 신여성의 상을 형성하는 데 주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여성이 동질적인 내포를 지닌 사회적 실재라기 보다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발화에 의해 구성된 담론적 구성물이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²³⁾소문은 단지 떠도는 이야기에만 머물지 않는다. 소문이라는 필터를 거치게 되면 익숙한 이야기로 재구성되어 좀 더 광범위하게 집단적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다. 거꾸로 이미 집단적으로 공유된 고정관념과 은폐되었지만 뿌리 깊은 사회적 관습에 의해 어떤 사건이 소문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럴 때 소문은 집단적 무의식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특히 소설은 성적, 육체적으로 매력적인 여성에 관한 소문을 흥미로운 소재로 활용하고 특정한 여성 이미지를 소비하면서 구축하는 역할을 했다. 여성이 떠도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소문이 소설의 소재로 활용되는 여성과 소문, 소설간의 순환관계는 이미 한국 근대 초기의 소설들에서도 발견된다.²⁴⁾

식민지 시기 신여성의 풍기문란을 둘러싼 소문을 키워드로한 잡지소설들²⁵⁾이 대거 등장했다. 풍기문란 소문 서사들은 가부장제 시선으로 고정

23) 손혜민, 앞의 논문, 148면.

24) 심진경,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소문의 서사화 전략 연구 - 『이심』의 스캔들화된 여성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Vol.68 No. 『한국문학언어학회』, 2016, 291면.

25) 『별건곤』과 『삼천리』가 게재한 대표적 소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이중명, 「그 녀자의 삼단론법」, 『삼천리』, 제4권 제7호, 1932. 5. 15.

강경애, 「그 여자」, 『삼천리』, 제4권 제9호, 1932. 9. 1.

김일엽, 「애욕을 피하여」, 『삼천리』, 제4권 제4호, 1932. 4. 1.

이효석, 「오리온과 임금」, 『삼천리』, 제4권 제3호, 1932. 3. 1.

최인아, 「남매」, 『별건곤』, 제26호, 1930. 2. 1.

나혜석, 「현숙」, 『삼천리』, 제8권 제12호, 1936. 12. 1.

백신애, 「정조원」, 『삼천리』, 제8권 제8호, 1936. 8. 1.

최유범, 「순아 참살사건」, 『별건곤』, 제60호, 1933. 2. 1.

_____, 「질투하는 악마」, 『별건곤』, 제61호, 1933. 3. 1.

_____, 「K박사의 명안」, 『별건곤』 제62호, 1933. 4. 1.

유진오, 「귀향」, 『별건곤』, 제28호, 1930. 5. 1.

된 성역할을 재구축 하였고 신여성을 사치와 허영의 주범으로 다루거나 혹은 남성중심적 사랑의 판타지를 묘사하였다. 무엇보다 명확한 근거없이 남성의 주관적 감정과 편견에 의해 추문을 전파하며 여성 인물을 타자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정조를 스캔들화하며 순결을 강요하는 사회적 억압을 드러냈다. 여성 인물들은 이같은 소문과 가십에 대항하여 주체적 욕망의 의지를 드러내거나 순종했다.

김동인의 「결혼식」에 나타난 풍기문란 소문은 여성 정체성을 균열내고 해체한 폭력적 시선의 양상을 뚜렷하게 보여준 대표적 소설이다. 이 소설은 신여성의 풍기문란 소문을 둘러싼 남성 인물들의 평가, 감시, 풍자, 회화화 등 여성 혐오를 적나라하게 묘사하였다. 즉 남성 인물들은 여성을 타자화하는 방식으로 남성의 주체화를 구축하는 전형적인 여성혐오의 방식²⁶⁾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 인물들의 입을 통해 여성 인물은 허영과 사치를 일삼을 뿐만 아니라 정조관념이 부재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인물로 구현된다. 남성 인물들의 이같은 태도에는 여성 정체성을 규범화한 당대 젠더 의식²⁷⁾이 내재되어 있다.

「결혼식」은 여성인물의 풍기문란을 둘러싼 향간에 떠도는 “말”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남성 화자는 우연한 “잡담 자리”에서 동료 K에게 전해 들은 여학교 출신 송선비의 “방종”을 직접 눈으로 본 듯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먼저 송선비의 사치와 허영에 대한 남성 화자의 언술은 신여성의 사치와 허영을 가십삼은 남성 필자들의 기사²⁸⁾와 흡사하다. 남성 화자는 소

26) 이같은 담론들은 각 시대의 ‘남성됨’에 어울리는 남성 주체화를 위해 그 반대편의 것들로 구성된다. 여기서의 모순은 남성의 주체화를 위해 여성이란 타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에노 치즈코, 나일등 역,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7, 14면, 306면)

27) 여학생의 사회적 존재 의미는 다른 여성들과의 비교 속에서 규명되었다. 여학생은 탕나나 유녀의 반대편 자리에 놓이면서 탈성적이고 무성적인 순수한 존재로 규정되었다. 즉 학령기 여성은 결혼 이전의 존재이자 성적으로 순결하고 무결한 존재로 범주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근대적 여성 주체로서 신여성이 소비와 향락에 몰든 허영적 존재라는 의미 규정이 강화되었다. (소영현, 「여학교와 기숙사 -식민지기 여학생과 일상 감각의 젠더적 재편」, 『국제어문』 Vol.0 No.83, 국제어문학회, 2019, 93면)

문에 기대어 송선비를 “옷차림이며 무엇에던 가장 그소위 첩단을 거른 여자”, “서울 유행을 제일 먼저 수입한 여자”, “이름 모를 일본 비단을 몸에 걸고 허욕에 뜬 계집애들의 유행의 선봉”, “팔에는 백금 팔뚝시계, 손가락에는 커다란 금강석을 박은 반지, 언제던 살이 꿰보이는 얇은 비단 양말” 등으로 묘사한다. 또한 “그 많은 관중 앞에서 필요 이상의 멋을 부리며 도라가든” 여학생, “재산 형편으로는 보잘 것 없는데 “너고보(高普)를 고이 마추고 서울 XX녀학교”를 졸업한 허영딩어리로 서술한다. 이렇듯 남성 화자는 “매일같이 신문에 오르내리는” 송선비의 풍기문란 소문을 확대 재생산한다. 남성 화자는 K의 “전문(傳聞)”을 옮기는 것으로 풍문 전파에 합류하면서도 객관적 사실이라는 듯 묘사한다. 남성 화자가 전하는 송선비의 이미지는 당대 남성 지식인들이 대상화하고 타자화한 신여성들의 부정적 이미지와 겹쳐진다. 남성 화자는 신여성의 혐오적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한 남성 지식인들을 대변하고 있다.

「대체 자네가 할려는 이야기는 어떤젠가. 매일 신문에 한 두 개씩 나는 것같이 송선비도 역시 모르고 그 김몬가 하는 사람에게 첩으로라도 갖단 말인가?」

「그러면 좋게? 하마터면 김철수가 송선비의 첩이 될 번 헛네 그려. 하하하」

28) 예를 들어 사치와 허영을 다룬 지면들은 아래와 같다.

최정희, 「서울에 돌현한 여성의 집단적 룬펜군, 룬펜의 연구를 겸하여」, 『삼천리』, 제4권제1호, 1932. 1. 1.

신불출씨 「만담방청기관대한 남편」, 『삼천리』, 제7권 제8호, 1935. 9. 1.

복혜숙, 복면객, 「장안 신사숙녀 스타일 만평」, 『삼천리』, 제9권 제1호, 1937. 1. 1.

신태아, 「현대녀성의 악취미」, 『삼천리』, 제10권 제8호, 1938.8.1.

박진주, 「녀학생시대에 눈꼴 틀니든 일」, 『별건곤』, 제6호, 1927. 4. 1.

성서인, 「미인제조비법공개」, 『별건곤』, 제15호, 1928. 8.1.

정우택, 「신문기자생활진담 평생에 즈음 당하던, 양장괴미인의 기사건」, 『별건곤』, 제22호, 1929. 8. 1.

「그럼 송모에게 본 남편이 잇었던 말인가? ... (중략)...내가 즉접 보지는 못했지만 서울 XX녀학교에 다닐 때도 제일 멋쟁이고 제일 하이칼나뎡다. 팔에는 백금 팔뚝시계, 손가락에는 (단 한 개지만)커다란 금강석을 박은 반지, 언제던 살이 께보이는 얇은 비단 양말-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 말야. 하기는 XX녀학교에 다닐 때는 그 비용이 모도 그 학교 교장 Q씨에게서 나왔단 말이 있어. 뿐더러 Q씨와 함께 낙태를 시키려 어떤 시골까지 다녀 왔단 말까지 잇기는 해.

Q씨라는 사람은 자네도 아다시피 유명한 색마가 아닌가. 건강한 육체와 녀자와 많이 사귄 수 잇는 제 지위를 리용해 가지고 유혹, 간통, 강간-온간 인륜에 어그리지는 일을 해 나가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깐, 그만하면 얼굴도 뽀뽀하고 역시 버위도 츠근츠근하고 성욕도 세인 선비하고 어느덧 이리케 저리케 뻗다는 것도 차라리 당연한 일이겠지. ... (중략)...그리고 사흘 거리로 Q씨가 평양을 내려와서는 선비를 불러다가는 려관에서 묵고 도로 올라가고 했네 그려. 김철수하교의 혼약이 꼭 그때야.

송선비에 대한 남성 인물들의 혐오는 풍문을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 감각적이고 조롱하듯 묘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남성 화자는 김철수와 송선비의 약혼이 “결혼희극”으로 소문난 것은 약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이가 없으리만치” 송선비가 추문을 뿌리고 다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남성 화자는 송선비의 사치와 허영에 든 비용이 Q씨에게서 “나왔단 말”로 부터 “Q씨와 함께 낙태를 시키려 어떤 시골까지 다녀왔단”것, 뿐만 아니라 “Q씨가 평양을 내려와서는 선비를 불러다가는 려관에서 묵고 도로 올라가고” 했는데 “김철수하교의 혼약이 꼭 그때”라고 한다. 이처럼 남성 인물들은 송선비에 대한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구체화시켜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신여성의 풍기문란을 단죄했다. 이렇듯 소문서사는 감시와 규제 그리고 처벌이라는 폭력적 시선이 내재해 있다.

지금도 나는 선비의 속을 알 수가 없어. Q씨하고 그만치 정분이 낮으면 왜 절수하고 혼약을 했는지. 무론 Q씨에게야 안해가 잇기야 하지. 하지만 소위 련애에는 국경도 없고 계급도 없고-련애는 온갖 것을 초월한다는 모던결 송선비양에게야 Q씨에게 안해가 잇고 없는게야 문제가 안 될게 아닌가. ...(중략)... 그러는 동안에 언젠간 색시는 자기와 Q씨의 관계를 새서방에게 다 이야기 했다나. 「이만하면 인전 내 이전의 비밀을 이야기해도 괜찬우리라」 이만큼 생각이 드러갓기에 이야기 했겠지. 그리고 결론으로는 나는 당신 때문에 그 Q씨를 버렸으며 인제부터는 당신 하나만 사랑하고 귀하 여기갓노라고 하면서 례에 의지하여 키쓰의 벼락을 나렸다.

“천박한 계집애”라는 비난에는 남성지배체제의 관습과 규범으로 여성 정체성을 규범화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남성 화자는 송선비를 사회 악으로 규정짓는 것을 당연시 한다. “Q씨하고 그만치 정분이 낮으면 왜 절수하고 혼약”을 했는지, “두 사내 녀석을 마음대로 이리저리” 조정하는 파렴치한 이라는 것이다.

이번은 제 몸뚱을 방 안으로 던졌네 그려. 그리고 거기는 일장의 활극이 이러났지. 「명사도 별 게 없네. 때리니깐 코피가 나든걸」 이게 농쟁이의 회고담. 좌우간, XX학교 교장 명사 신사 Q씨는 조선 13도 사람이 다 모여들은 여관에서 실컷 두들겨 맞고 멧쟁이 하이칼라 송양은 치마를 찢기우고 잠뱅이 바람으로 제 집으로 다라나고. ...(중략)... 신랑 집에서는 파혼은 해 놓았지만 큰 걱정일세 그려. 음식 차렸든 것은 둘째 치고 내일 잔채하노라고 모든 친지들한테 알게 하고 부조 들어온 것도 착실이 받아 먹고 했는데 잔채를 못하면 그제 무슨 망신인가 ...(중략).. 결혼식을 끝내고 신부를 껴안고 집으로 도라와서 면사포를 벗기고 보니깐 몇 해 전에 쫓아 버렸든 농쟁이의 고처(古妻)라. 말하자면 농쟁이 은혼식을 한 셈 일세 그려. 몇 해 전에 구식이라고 쫓아버렸든 고처하고 다시 신식 결혼

을 헛네 그려.놈팽이 열적은지 이튼날로 동경으로 다라나고 말었서. 신흔의 재미도 보지 않고...(중략)...한데 동경서 나오는 기별을 드르니깐, 자식, 고처(古妻)하고 다시 결혼식을 했단 말은 일절 내지도 않고 송선비와 결혼한 이야기며 송선비의 미덕(美德)을 선전하면서 도라 다닌다나.

풍기문란 소문 서사는 실제의 허구화 혹은 허구의 실제화를 형상화하며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드라마적 요소를 보여준다. 스캔들화된 여성을 통해 당대 사회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는, 이른바 세태소설의 방식을 구현한다.²⁹⁾ 「결혼식」 또한 송선비의 풍기문란에 초점을 두고 근대적 결혼 세태를 “일장의 활극”으로 마무리한다. 송선비의 이중생활이 김철수에게 발각되자 “Q씨는 여관에서 실컷 두들겨 맞고 멧쟁이 하이칼라 송양은 치마를 찢기우고 잠뱅이 바람으로” 달아났다는 것이다. 김철수 집안은 “무슨 망신인가”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매파를 앞세워 “색시를 구하러” 다니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한다. 또한 김철수가 이혼한 “고처(古妻)하고 다시 결혼식을 했단 말은 일절 내지도 않고” 송선비와 결혼한 것처럼 속이고 그녀의 “미덕(美德)을 선전하면서 도라 다닌다”는 것이다. 이렇듯 여성인물에 대한 혐오는 근대적 사랑과 결혼에 대한 회화화와 냉소를 통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보았듯이 「결혼식」은 여성 인물의 풍기문란 소문을 둘러싼 남성 인물들의 폭력적 발화를 밀도있게 묘사하였다. 남성 인물들의 화법은 당대 매체들이 향간에 떠도는 풍기문란 소문을 상업적 목적으로 윤색해 신여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한 것과 매우 흡사하다. 무엇보다 「결혼식」은 풍기문란 소문에 의해 신여성이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신여성의 존재론적 역사는 훼손된 당대 분위기를 가늠하게 한다. 즉 풍기문란 소문이 신여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여성 혐오 그리고 젠더 위계화를 형성하는데 주요한 축이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29) 심진경, 앞의 논문, 294-295면.

4. 결론

1920년대는 식민지 근대의 발전 이데올로기가 전방위로 확산된 때다.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근대의 물질과 정신의 산물은 광범위하게 개인의 내면과 일상으로 확산되었다. 무엇보다 지배담론은 여성교육의 이념으로 전통적 현모양처론을 내세우는 한편 근대적 주체로서의 여성상을 훈육했다. 그 연장선에서 풍기문란 소문은 신여성의 연애와 결혼 등 사적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매개로 활용되었다. 근대적 계몽의 주체와 전통의 수호자라는 경계에서 신여성은 풍기문란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 조롱과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그럼에도 신여성을 둘러싼 풍기문란 소문이 내면화한 젠더 위계화에 주목한 선행연구는 지극히 협소하다.

본고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별건곤』과 『삼천리』 담론과 김동인의 「결혼식」에 나타난 풍기문란 소문이 신여성의 부정적 이미지와 여성 혐오 그리고 젠더 위계화를 내면화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즉 신여성의 풍기문란 소문에 나타난 위계화된 젠더 의식을 살핌으로써 여성상에 대한 고정관념, 즉 여성적인 것을 규범화한 젠더 위계화의 구체적 유통을 살펴 보았다.

신여성의 풍기문란 소문을 분석하는 일은 여성혐오의 역사성을 살피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여성혐오는 신자유주의와 혐오주의, 근대사회 이후의 감정사회학적 관점, 젠더 정치학과 혐오현상과의 관련성, 그리고 혐오감정과 혐오발화 사이의 동학을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감정사회학이나 혐오주의에 대한 이론 해석에 치우쳐져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해석은 소홀하게 논의되었다.³⁰⁾ 이 글은 이

30) 이선옥은 반복되는 여성혐오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헤게모니 남성성 구성과 관련되어 있는지, 남성성의 요소와 여성성의 요소가 재구성되는 과정과 대립항의 요소간의 우위가 바뀌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는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래야만 여성혐오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 사회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선옥, 앞의 논문,

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풍기문란 소문이 배태한 식민지 근대의 젠더 위계화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했다. 앞으로 진행될 연구에서는 신여성의 풍기문란 소문에 나타난 여성혐오를 최근의 여성혐오 현상과 연관지어 논의함으로써 여성혐오의 역사성을 더욱 밀도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현재 여성혐오에 대한 연구 성과와 한계를 넘어 여성혐오를 둘러싼 역사적 쟁점을 이해하는 한 방법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별건곤』(1926. 11.-1934. 8) 풍기문란 기사
『삼천리』(1929. 6. 12. - 1939. 6. 1) 풍기문란 기사
김동인, 「결혼식」, 『동광』 제24호, 1931. 8. 4.

2. 단행본

- 김연숙, 「여성,소문으로 말해지다」, 『그녀들의 이야기, 신여성』, 역락, 2011. 33면.
우에노 치즈코, 나일등 역,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7, 14면, 306면.
Hans J. Neubauer, 박동자·황승환 역, 『소문의 역사』, 세종서적, 2001, 17-18면.

3. 논문

- 강영걸·정혜영, 「1930년대 대중잡지를 통해 본 식민지 조선의 '대중」, 『비교한국학』, Vol.20 No, 국제비교한국학회, 2012, 157-158면.
김수진, 『1920-30년대 신여성담론과 상징의 구성』, 서울대 박사논문, 2005, 124-126면.
김양선, 「발견되는 성, 전시되는 성 -식민지 근대와 섹슈얼리티의 접속-」, 『시학과언어학』, Vol.0 No.21, 시학과언어학회, 2011, 64면.
김연숙, 「사적 공간의 미서권력 -소문」, 태혜숙 외,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4, 214-240면.
_____, 「근대 주체 형성과 '감정'의 서사: 애화비화에 나타난 '슬픔'의 구조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Vol.29 No.-, 현대문학이론학회, 2006, 44면.
김은실, 「염상섭의 모델소설 「해바라기」의 나혜석 이해하기」, 『나혜석연구』, Vol.9 No.-, 나혜석학회, 2016, 108면.
류진아, 「근대 여성 성폭력 연구」, 『국어문학』, Vol.61 No.-, 국어문학회, 2016, 159-186면.
박경선, 『삼천리』에 나타난 1930년대의 결혼관, 『인문과학연구』, Vol.0 No.27,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105면.
박산향, 「김명소 소설에 나타난 근대여성에 대한 시선」,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8 No.1, 부경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17, 157-179면.
박정애, 「소문과 진실: 나혜석과 이광수」, 『나혜석연구』, Vol.2 No.-, 나혜석학회, 2013, 7-32면.
소영현, 「여학교와 기숙사 -식민지기 여학생과 일상 감각의 젠더적 재편-」, 『국제어문

- 』 Vol.0 No.83, 국제어문학회, 2019, 93면.
- 소현숙, 「일제하 중등학교 여학생의 일상에 대한 규율과 통제」, 『여성과 역사』, Vol.0 No.31, 한국여성사학회, 2019, 244-250면. 277면.
- _____, 「식민지시기 불량소년 담론의 형성」, 『한국사회사학회』, Vol.0 No.107, 사회와역사, 2015, 49~50면.
- 손혜민, 「소문에 대응하여 형성되는 "신여성"의 기표 -나혜석의 단편 「경희」(1918)를 중심으로」, 『사이(SAI)』, Vol.7 No,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9, 141-168면, 148면.
- 손희정, 「혐오와 절합하고 경합하는 정동들」, 『여성문학연구』, Vol.36 No, 한국여성문학회, 2015, 128면.
- 송명희, 「김명순, 여성 혐오를 혐오하다」,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8 No.1, 부경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7, 123-154면.
- 심진경, 「여성문학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한국근대문학연구』, Vol.- No.19, 한국근대문학학회, 2009, 181-201면.
- 이덕화, 「이광수의 나혜석과의 관계에 대한 문학적 대응」, 『춘원연구학보』, Vol.0 No.10, 춘원연구학회, 2017, 175-198면.
- 이영아, 「1920년대 소설의 '자살' 형상화 양상 연구 -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Vol.0 No.33, 한국현대문학학회, 2011, 207-248면.
- 이윤미, 「식민지시기 『학생』지에 나타난 여학생교육」, 『교육사상연구』, Vol.31 No.3,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17, 67-103면.
- 이희경, 「1920년대 '여학생'의 사회적 표상 - 잡지 『신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연구』, Vol.10 No.1, 한국교육연구소, 2004, 55-79면.
- 진선영, 「추문의 데마고기(Demagogy)화, 수사학에서 정치학으로」, 『여성문학연구』, Vol.30 No.-,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321-346면.
- 최경희, 「1920-1930년대 『별건곤』을 통해 본 연애와 결혼의 의미와 양상 연구-신여성·신가정·근대의 젠더 의식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Vol.0 No.67, 우리문학연구, 2020, 403-425면.
- 최명표, 「소문으로 구성된 김명순의 삶과 문학」, 『현대문학이론연구』, Vol.30 No.- 현대문학이론학회, 2007, 221-245면.
- 켈리 Y. 정, 「신여성, 구경거리(a spectacle)로서의 여성성: 가시성과 접근성 : 나혜석의 「경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Vol.0 No.2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5, 126면.

<Abstract>

A Study on the Demoralizing Rumors Shown in
the Magazine Discourse of
the Modern Colonial Period
and Kim Dong-in's *The Wedding*

Choi, Kyung Hee

This study analyzed the negative images toward the new woman, misogyny, and the normalization of modern femininity shown in the demoralizing rumors as pertaining to *Byeolgeongon*, *Samcheonli* of the modern colonial period and Kim Dong-in's *The Wedding*. *Byeolgeongon* and *Samcheonli* published articles on politics, society, culture, life, nationalism and socialism, modern desires and everyday life, and novels centered around colonial modernity. In addition, they demonstrated hierarchical gender consciousness by claiming to advocate popular commercial viability in the process of addressing demoralizing rumors that surrounded the love and sexuality of the new women. In other words, the demoralizing rumors exhibited in the writings of visit reports, tailing accounts, scouting journals, behind-the-scenes stories, tragic tales, retrospections, memoirs, etc. internalized the gender hierarchy. Moreover, Kim Dong-in's *The Wedding* is a novel in which a male narrator inexorably discloses the demoralizing rumors of the new women in a conventional and hatred-ridden tone, embodying the sense of guilt, self-awakening, and social retribution for the absence of the idea of chastity. With a focus on this, the study examined the fact that the

demoralizing rumors indicated in *Byeolgeongon*, *Samcheonli*, and Kim Dong-in's *The Wedding* were mediums for monitoring and controlling the thinking and daily life of the new women. Namely, it revealed that the demoralizing rumors had been inherent with the new family discourse internalizing the pure and ladylike wife and mother, such as encouraging and disciplining the new image of a wise mother and good wife. In a nutshell, the study analyzed that the rumors and gossip around demoralization had not only been used to execute life regulations and sexual control but also to normalize the feminine identity based on the qualifications as a wife and a mother.

Key words: colonial period, modern, Byeolgeongon, Samcheonli, new woman, negative images, rumor, gossip, gender, date, marriage, misogyny, Kim Dong-in

투 고 일: 2021년 11월 24일

심 사 일: 2021년 12월 14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14일

수정마감일: 2021년 12월 23일